

1. 연구회의 창립

산업의 발전과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고, 전문 연구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문분과별 연구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75. 1. 31일 제24회 정기 총회에서 학회의 정관이 개정되어 연구회 설치규정이 시행되었다.

전기기기 연구회는 전문분과 연구회로서는 본 학회에서는 최초로 1975년 5월 10일 부산 극동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가졌으며 초대 간사장으로는 이승원 서울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전기기기연구회는 전기기기분야 특히 정치기, 회전기, 전력변환기등의 분야를 전공하는 회원들의 친목과 학술정보의 교환을 위한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통해 전기기기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2. 연구회의 주요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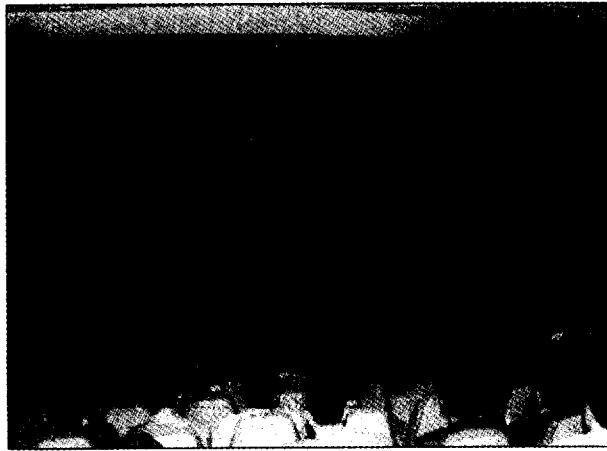
전기기기 연구회는 창립이후 년간 1, 2회의 학술발표 및 심포지엄을 통하여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학술교류로 전기기기 산업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학계와 산업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산업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회 참여방안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는 간사장을 산업체와 학계가 격년제로 맡아서 운영하여 왔다.

주요활동실적으로는 1996년 9월 16일부터 19일 까지 국제학술회의인 '96 SMIC (The Second Small Motor International Conference)을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4개국의 49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등 국제간의 기술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는 '97년 4월 25일 경남 창원시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2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렸다. 특히 전기기기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기기기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넓게하여 모든 전기기기의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더 많은 연구발표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추계 총회시 연구발표회를 겸하기로 의견을 모아, 1997년 10월 25일 기초전력 공학연구소에서 개최될 예정인 총회시 15편의 논문이 발표될 계획이다. 창립이후 전기기기 연구회의 활동실적은 표 1과 같다.

표 1. 전기기기 연구회 활동실적

년도	간사장	회차수	발표회	주제
'75	이승원	2	11	
'76	오궁열	2	12	
'77	이윤종	2	16	
'78	박민호	2	20	
'79	천희영	2	13	
'80	원종수	2	16	
'81	정연택	2	22	
'82	윤병도	2	37	
'83	박충규	2	32	
'84	김한성	2	19	
'85	배진호	2	21	
'86	황영문	2	24	
'87	임달호	1	13	
'88	박경섭	1	13	
'89	한송엽	1	7	
'90	김동상	1	6	
'91	황석영	1	11	
'92	김희수	1	8	
'93	조철제	1	8	
'94	곽민식	1	11	
'95	이은웅	1	8	
'96	유재환	2	55	'96 SMIC 포함
'97	강영식	2	38	



'97춘계 전기기기 연구회 학술발표회

전기기기분야의 논문발표는 전기기기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과 더불어 증가되어 왔으며 전기학회의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와 연구회 학술발표를 합하면 80년대말 년간 발표건수 40편에서 이제는 년간 150여편의 발표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88년 이후의 전기기기분야의 발표논문수는 표2와 같다.

표 2. 전기기기 분야 논문 발표 현황(논문수)

년도	하계 발표	추계 발표	연구회 발표	합계
'88	9	17	13	39
'89	13	13	7	33
'90	9	16	6	31
'91	29	12	11	52
'92	39	19	8	66
'93	54	15	8	77
'94	77	15	11	103
'95	59	18	8	85
'96	87	10	55	152
'97	101	-	38	139
합계	477	135	165	777

3. 향후 전망

국내의 전기기기 산업은 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성장하여 초기의 기술도입에 의한 조립생산 단계에서 이제는 최첨단 초대형 발전 Plant, 초고압 대용량 송전 System 및 전력기기, 인공지능 및 퍼지이론을 도입한 자동화 System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WTO 체제의 진입으로 국제 무역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 하였으며,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장벽을 더욱 심화시킴에 따라 자체개발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국내산업계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업계의 연구개발 수요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개발 의욕과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전기기기 분야의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예측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설계기술의 발전과 신시술의 개발, 신개념 전기기기의 개발등 산. 학. 연의 공동 연구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회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전기기기 연구회를 이끌어오신 전임 간사장님들과 원로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기기기 연구회가 산. 학. 연 협동연구로 우리나라 전기기기산업 발전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강영식(姜英植)

1945년 5월 29일생. 1968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68년 1월~1978년 8월 이천전기공업(주) 전기지부 차장. 1978년 9월~1979년 10월 대한전선(주) 중전사업부 기획과장. 1979년~1981년 5월 쌍용 중전기공업(주) 생산부장. 현재 전기연구소 전력기기 연구부장.